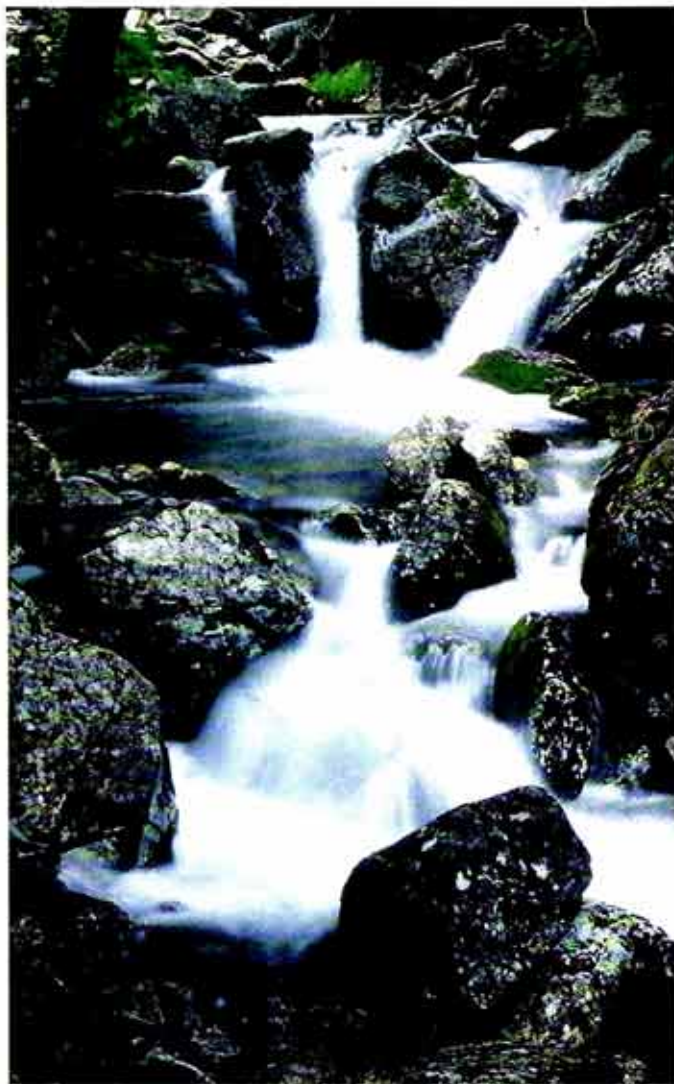


# 세속의 때 씻어주는 정취수



<4>도피안에 이르는 길-내(III)

절에 갈 때 나는 차 안에서 주로 차창 밖을 내다보며 걷다. 창밖에 주마등처럼 밟힌 등인데(차)처럼 스쳐 지나가는 먼, 그리고 가까운 풍경은 언제나 실증되지 않는 명화 같은, 뿌듯한 감동을 준다. 생물과 무생물을 따로 나누지 않는 나는, 창밖의 삼라만상이 모두 나에게 무언의 말을 던지시 건네고 있는 것에 놀란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 가슴을 박차오르게 한다. 한 시간, 두 시간, 아니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마음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감동에 차 있고, 내 감성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감았던 눈을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차 안의 사람들은 대개 책을 보거나, 고상한 분들의 글을 읽을 자거나 아니면 시시껍렁한 집담을 나누면서 지루함(지루함)을 매우는 것이 상례다. 글씨, 절을 가든, 산을 가든, 내(III)를 가든, 어쨌든 모처럼 자연과 벗하러 하루를 나선 건데, 차 안을 독서실이나 침실 또는 휴게실로 착각하는 건, 아무래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닐까? 꼭 산 속에 들어가야만 자연이고, 불상 앞에 있어야만 절에 왔다는, 그 막힌 사고구조가 우리의 삶을 경직되게 하고 답답해지게 하는 것 아닐까?

절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 세계로 이끌어 주고, 산은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으로 가는 길은 멀다. 산으로 가기 위해선 세속의 때를 먼저 씻어내야 한다. 산에 가서 씻어내려고 해선 이미 늦는다. 예전엔 치성을 드릴 때 적어도 삼 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았던가? 요즘 세상이 복잡할 것 같아하고, 골치 아픈 것 같다고 하지만, 적어도 절이나 자연에 몸 맡기러 가는 때만큼은 마음의 때를 씻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 마음이 차 안에 머물러 있던 세속의 때를 씻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 차는 세속을 벗어나는 통과의례나, 창밖에 정령수가 있는 것일!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런 감동을 받지 않고 차 안에 마음을 잔뜩 매어두었다가 목척지에 다다라야 하는 비비며 내리니까는 앞은 안개만이 자욱할 수밖에. 그리고 사진은 걸만 훑어 나가는 빈방이 되고 만다. 사진? 예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예술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 나라는 산과 내(III)가 많은 나라다. 그래서 풍수가 발달

## 졸졸졸 굽이도는 냇물에 마음 씻고 부처님 세계로

되었고, 산천(山川)에 때 놓고 말할 수 없는 날말이 되었다. 산과 내-아, 산과 내가 어울린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감동이 아닐까? 사람들은 내만 보면 애가 된다. 물이 모태의 근원이 돼서 그렇까? 그러서인지, 내만 보면 튀어들고 싶어진다. 못 사람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문화의 세뇌(사회화) 하는 기분을 받아서 그렇지, 다들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내로 뛰어 들어가 텅텅거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릴 때 얼마나 그렇게 하고 놀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가 다 떨어져 없어지고 아스팔트 길이 되어 버렸다. 남아 있는 곳이 오직 산천을 함께 하고 있는 산사일 뿐이다. 산 따라 길 따라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졸졸졸, 때론 와-와-와 돌에 부딪치고, 팔걸 굽이치며 흐르는 냇물은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준다. 시원해? 뭐가 시원할까? 물이 시원해? 아니, 마음이 시원하다. 왜 그럴까? 세상의 온갖 때가 다 씻겨내려가기 때문이다. 월천공덕이라고 한다. 내를 건너는 것이 왜 공덕이 될까? 세상의 때를 벗어아 바라밀에 이르는 것이니까. 물은 평화와 도피안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물은 핵심적 상징이 된다. 절은 들어가면서부터 내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준다. 그러기에 공덕이 된다. 냇물과 그 소리에 마음을 흥건히 씻고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내(III)는 길게 그리고 맑은, 정업의 진언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곳에 발만 담가야, 발이나 제대로 씻겨지나? 발은 이미 아침마다 깨끗이 씻고 와서 더 씻을 것도 없다. 마음은 여기사밖에 씻을 곳이 없는데, 마음은 씻을 줄 모르고 애꿎은 얼굴에 물을 추기고, 발을 담가서 뭘 할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만 밀짚해 질 수밖에.

스님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오대산을 어디로 가지요? 공장 가시오. 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장 가지. 절이 뭐냐고? 물일세.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 운허스님 옮긴 '법화경' 인기

법구경 · 장아함경 · 선문염송도 애독서

### 불자들이 즐겨찾는 경전

한글대장경 가운데 불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은 어떤 것들일까.

1964년 7월 역경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펴낸 <장아함경>이 빼놓을 수 없는 애독 경전이다. 부처님 재세시의 가르침은 물론 행적들까지 상세히 담은 <장아함경>은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전. <장아함경>의 출간으로 불자들의 초기불교(원시불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으며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났다.

부처님의 전생담과 재세시의 행적들을 담은 경전들도 단연 인기 경전이다. 모두 5권으로 구성된 <본생경>과 2권으로 간행된 <불본행집경>이 대표적 경전이다. 이들 경전은 불자들에게 두루 읽히기도 했지만 자칫 신격화되거나 기복의 절대적 대상으로 오해 될 수도 있는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 주었다는 데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본생경>의 경우 팔리어장경을 곧바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어서 더욱 친밀감을 얻은 내용에 독자들이 매료되고 있다.

"많이 알려진 것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는 경전에도 적용된다. <법구경>과 <회엄경>, <법화경>에 대한 불자들의 애독은 대중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 <법구경>은 짧은 시구절에 담긴 번득이는 삶의 지혜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 때문에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단행본도 다양하게 나왔다. <법화경>의 경우는 초대역경원장 운허스님이 친히 번역을 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며 <회엄경> 60권본, 80권본, 40권본에도 운허스님의 손길이 닿아 '최고의 번역'으로 꼽힌다.

법정스님이 <회엄경>을 축약해 펴낸 단행본 신역<회엄경>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대장경에는 없으나 동국역경원이 추가로 번역해 편찬한 한국찬술 가운데서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를 비롯한 저작들과 <선문염송> <초의집> 등이 상당한 애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한글 대장경에는 한국찬술 논저 100여종이 포함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단순한 한역의 한글화 편찬 차원을 넘어 신학을 이끌고 학자들의 연구 범위를 넓혀주는 등 불교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전신화와 인터넷상의 제공은 물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들의 단행본 발간 작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 추천사

#### 진리의 삶 사는 지름길



김용림  
달린트

저는 불교방송국의 개국 때부터 13년째 '신행 365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길을 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가를 느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사는 사람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동국역경원이 36년의 세월을 다듬어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그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글대장경을 소장하고 사찰에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찰마다 가정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을 구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환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총합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 7.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 5. 정보커뮤니티 ⇨ 5. 인터넷채널
- ⇨ 8. 종교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 7. 정보광장 ⇨ 5. 생활/건강/법률 ⇨ 불교정보
- 016, 018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염닷컴
- 11.magic@시작 ⇨ 8. 정보와 생활
- ⇨ 4. 생활과 문화 ⇨ 2. 종교 ⇨ 불교세상

신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매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간,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